

2.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문제 I]

각 제시문은 사회화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가], [라], [바]는 기능론적 관점을, [나], [다], [마]는 갈등론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가]는 학교 교육이 개인에게 사회의 규범과 가치 등을 학습시켜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유익한 사회화 제도라고 설명한다. [라]는 개인이 사회의 행동양식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실현은 물론 사회 통합에 공헌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 [바]는 스포츠가 사회 구성원에게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체험시켜 사회 체제를 유지시키고 개인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한다고 본다.

반면, [나]에서는 일부 사회 구성원이 지배계층의 억압적인 가치관 강요에 대해 자유를 갈망하지만 결국 좌절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다]에서는 개인의 사회화 과정이 지배계층의 이념과 체제 구조를 비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마]는 지배층인 여성에게 남성이 성적으로 억압받지만 순응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세상을 그리고 있다. [487자]

[문제 II]

제시문 [사]는 사회화를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사회화는 다른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개인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몸짓을 모방하고 이해해 가며 사회의 규칙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사회화라는 주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평가하면, 제시문 [다]는 사회화를 개인이 지배계층의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 사회의 위계적 구조가 공고하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사회화는 구성원 간에 상징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미시적 관점의 해석이 필요하다. 또 사회화는 개인이 지배 체제에 비자발적으로 편입되는 부정적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 개인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화를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라]에서는 사회화를 개인이 사회의 가치를 학습해 자신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며 안정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과정으로 본다. 하지만 개인은 사회 전체 속에서 맡은 역할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과 상징적 의미를 주고받는 미시적 과정을 거쳐 사회화된다. 그리고 사회화를 개인이 원활한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긍정적 과정으로만 볼 수 없다. 개인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 지배 체제의 이념과 전통에 순응하기 때문이다.

[675자]

[문제 Ⅲ]

교통안전교육 시행 건수(x)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수(y)의 합이 120건이며, 교통안전교육 시행 건수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수보다 3배 많으므로 $x+y=120$ 이며 $x=3y$ 이다. 두 식을 풀면 $x=90$ 이고 $y=30$ 이다. 그리고 교통안전교육 시행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총 300억 원을 사용하였으므로 $ax+by=300$ 억 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a 와 b 는 교통안전교육 시행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 건수 당 비용이다. 그리고 과속단속카메라 1대 설치의 비용이 교통안전교육 1회 시행의 비용보다 2배 높으므로 $b=2a$ 이다. 이를 앞에서 구한 $x=90$ 이고 $y=30$ 를 이용하여 풀면 $a=2$ 억 원이고 $b=4$ 억 원이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 효과(R)는 $R=0.03x+0.01y$ 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A지역은 예산에 의한 제약($2x+4y \leq 300$)과 법에 의한 제약($x \geq 10, y \geq 10$)을 만족시키며, $R=0.03x+0.01y$ 이 최댓값을 가질 때의 x 와 y 의 값을 각각 구해야 한다. $x=130, y=10$ 일 때 $R=0.03x+0.01y$ 이 최대가 된다.

따라서 지난해 교통안전교육을 90회 시행하고 과속단속카메라를 30대 설치한 A지역은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를 위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시행했다고 할 수 없다. 교통안전교육 건수를 늘리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수를 줄였어야 했다.

제시문 [라]에 의하면 사회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회 제도와 규범을 순조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정부가 운전자들에게 교통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A지역은 교통안전교육 시행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보다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면서도 불구하고 교육보다 감시와 통제 정책을 중요하게 시행하였다고 평가된다.

